



# 칭찬하고 응원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칭찬은 생활의 활력소요,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하며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합니다. <편집자 주>

푸른신문에서는 주민여러분의 따뜻한 칭찬과 응원, 미담사례를 접수 받고 있습니다.

푸른신문 '칭찬하고 응원해요'란에 들어갈 가족 또는 우리 이웃들에 대한 힘이 되는 메시지와 사진을 함께 보내 주시면 예쁘게 편집해서 실어드립니다.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 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하고 응원해요'는 계속됩니다.



\*접수는 이메일 pr5726000@naver.com로 보내주세요.

## 푸른방송 재무팀 양이슬 사원 칭찬하고 응원합니다.

웃음과 활력을 주는 이슬님을 칭찬합니다. 같은 부서는 아니지만, 당직근무를 할 때 가끔씩 만나는 이슬님은 일을 할 때마다 차분하고 조용하게 고객과 상담을 잘 진행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사무실 내에서 만나면 항상 생글생글 웃으며 목례 인사로 선배를 배려해 주는 이슬님을 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슬님의 밝은 에너지와 배려가 주변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웃음 그 자체로 큰 선물입니다. 이슬님~ 화이팅!!

“사람들은 당신이 한 말이나 한 일을 기억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당신이 그들에게 어떤 감정을 주었는지는 기억할 것이다.”

-마야잉젤루-

<칭찬하는 사람:박미숙>



## 누구보다 회사 일을 열심히 하는 친구~ 칭찬하고 응원합니다.

회사는 돈을 벌기 위해 다니는 곳이지만, 일로 만난 사이에도 우정과 사랑은 존재합니다. 동료이기도 하지만 좋아하는 친구이기도 합니다. 회사 일도 누구보다 열심히 하지만, 분위기 메이커로 친구가 있고 없고 차이가 크게 납니다. 동료들이 잘못이나 실수에도 비난과 질책보다는 따뜻하게 격려해 주고, 좋은 영향을 주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갖춘 친구입니다. 후배들도 아주 좋아하고 보고 배우는 거 같아 보기 좋습니다. 동료이자 친구인 옥주야~ 응원하고 칭찬해!! 열심히 살자!!

<칭찬하는 사람:정영옥>



# 푸른방송과 푸른신문이 지역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달서구 달성군의 중소기업들에게 힘이 되고자 **기획기사**를 **무료**로 연속 게재하고 있습니다.

기획기사를 통해 가계 **홍보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민들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유연히 대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의 장**을 마련하고 있으니 지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홍보가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십시오. 푸른방송 551-2000, 푸른신문 572-6000